



정확한 계측을 위한 아름다운 도전, 한국켄트메타스

우리 주위를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너무나 많은 계량기와 계측기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기 사용량을 측정하고 검침하기 위한 전력계량계, 가스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한 가스계량기를 포함, 늘 수돗가 근처에 파란색 뚜껑으로 덮여 있던 수도계량기도 그중 하나다. 두어 달에 한 번씩 대문을 두드리며 “계량기 보러 왔어요”를 외치던 수도 검침원들. 그러나 한국켄트메타스의 기술력이 더해진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이 또한 과거의 한 장면으로 사라질 날이 멀지 않은 듯하다. 1992년 4월에 설립되어 15년여의 시간을 수도미터기 생산에 전력을 다해 온 한국켄트메타스. 한정된 시장에 머무르지 않고 더 나은 제품으로 신시장을 개척하려는 그들의 아름다운 노력을 들여다보자.

‘물’에 대한 욕심 하나로

김장기 대표가 1992년 4월 한국켄트메타스를 설립하기 이전부터 운영하던 회사인 ‘한국누수방지기술개발’은 누수 탐사 전문으로 상수도 유지관리를 맡아왔다.

“처음 서울시로부터 일을 의뢰받을 당시 누수 한건당 3만 9,000원 정도의 보수를 받으며 누수가 의심되는 곳이면 지역을 막론하고 부지런히 돌아다녔죠.”

그러나 김장기 대표는 일을 하면 할수록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었다. 누수 탐사를 하고 30여 곳에 달하는 누수 부분을 발견하여 조치를 취했다면 당연히 우수율이 95% 이상 상승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다. 정수장에서 100의 물을 보냈다면 당연히 가정까지 100에 가까운 물이 도

착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 답답할 수밖에. 원인을 꼭 찾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미터기에 이상이 있음을 알게 됐다.

수도뿐만 아니라 전기, 가스 등의 계량기들은 공급되는 양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향후 생산량과 공급량을 결정하는 소중한 자료를 제공한다. 노후하고 부정확한 수도미터는 결국 수도요금의 정확한 수급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에 국민이나 정부 모두의 입장에서 민감한 부분이 아닐 수 없었다.

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수도미터를 보급하기 위해 회사를 설립한 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터기 생산업체인 영국의 켄트社에 혈혈단신 찾아가기를 수차례. 계약을 맺고 1년에 200~300개씩 수입하기 시작한 김 대표는 얼마 뒤 기술제휴까지 성사시켜, 현재 수도미터 바디 부분은 자체 생산할 정도의 기술력을 보유하기에 이르렀다.

“국내의 수도미터 시장은 참으로 협소합니다. 수도 파이프와 달리 수도미터는 한 해를 두고 물량이 정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생산한다고 해서 판매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한국켄트메타스가 협소한 국내 시장의 한계를 뛰어넘을 대안으로 떠올린 것은 바로 ‘기술력’이었다.

앞서가는 기술, 새로운 시장 개척으로

한국켄트메타스는 수도미터 분야에 고품질 개념을 내세우면서 소형 로터리피스톤식 PSM미터부터 대형 고감도 수도미터, 전자식유량계에 이르기까지 정확도와 성능이 우수한 다양한 제품군으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국내 최초의 신기술인 소형 실측식 수도미터의 보급으로 새로운 소형미터의 장을 열게 된 것은 한국켄트메타스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로써 국내에도 로터리피스톤미터의 표준화 작업이 시작되었죠.”

한국켄트메타스의 주력 제품 가운데 하나인 PSM이 15~

50mm용 제품이라면,

40~300mm에 상응

하는 제품은 HELIX

4000(터빈형 윌트 방식)

수도미터기. 탄력

성이 좋은

신소재를



이용해 충격에도 강하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부관 붙임(연결식) 수도미터 제품은 한국켄트메타스의 기술력이 다시 한 번 빛을 발휘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

“소량의 물이 지나갈 때 간혹 미터기가 계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한 것이 연결식 수도미터입니다. 수량이 적을 때는 주밸브가 자동으로 차단되고 옆으로 이어진 부관부의 아틀메타로 물의 흐름이 바뀌도록 설계되어 있어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놓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날로그에서 전자식유량계로의 진화를 통한 한 차원 높은 정확한 측정, 무선원격검침시스템의 보급으로 인터넷을 통해 간단히 실시하는 유량 측정 등은 앞으로 한국켄트메타스가 개척해야 할 부분이다. 설립 초기 회사의 제품을 알리기 위해 무료로 제품을 보급하며 타사와의 차별화를 강조했던 것은 제품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자신감이 이제 기술의 고유명사가 되어 수도미터 분야 최고의 회사로 거듭나는 밑거름이 되어 가고 있다. 

